

가해

연중 제11주일

기초 자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시나이 산 도착과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을 약속하시다."

(성경에서 탈출 19,3-8 부분의 제목)

오늘 제독서의 내용은 본격적인 계약을 맺기에 앞서
계약 체결의 목적을 알려주는 일종의 서언이다.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목

계약 체결의 목적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탈출 19,5)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참으로 듣고 지켜야 한다.

=>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사제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

이스라엘의 죄 -> 바빌론 유배 ->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 가는 여정

=>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자신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도구이자 백성,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었다고 여김(제독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구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탈출 19,5)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 준수에 따른 것이 아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 때문

=> 하느님은 인간의 모든 죄스러운 조건들을 넘어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과 희망

여전히 죄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전과는 달리 큰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로마 5,9)

=>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믿음과 희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로마 5,9)

=>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것뿐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는 열두 사도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마태 9,37-38)

하느님께서 구약의 열두 부족과 계약을 맺으심으로써
당신의 뜻인 율법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사도를 뽑아 세우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에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열두 제자의 파기권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마태 10,6)

이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님

=>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위한 도구로 하느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복음사가의 견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먼저 이스라엘 집안이 예수님게로 모여들고 나서

온 민족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하늘 나라: 하느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곳,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

=> 구약에서 예고된 모든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

곧, 예수님이 바로 하늘 나라이다.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마태 10,8)

=> 제자들은 하늘 나라를 미리 보여주라고 파견된 이들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 10,8)

우리는 잘나거나 잘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도록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이다.

내가 거저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거저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다.

